



정치 > 통일

문재인-김정은 담소 나눈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 예정

"안전성 우려로 판문점 견학 시 방문 제한돼 와"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6-03 08:14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도보다리'에 도착해 담소를 나눴다. 2018.4.27/뉴스1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30분간 대화를 나눴던 판문점 도보다리 일부 구간에 대해 정부가 이달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3일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습지 위에 만들어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지질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마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중 지질 조사를 시작해 보수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 우려로 인해 그간 판문점 견학 시에도 도보다리 방문은 제한돼 있었다"며 "보수 공사가 완료된다면 판문점 견학 때도 도보다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보다리는 1953년 6·25전쟁 휴전협정 이후 판문점 건물 간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50m의 작은 다리다. 애초엔 일자형 구조였지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두 정상에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T자형으로 개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